

Coaching

● 2024 SPRING Vol.48

특별 인터뷰

김영철 바인그룹 회장

“코칭으로 풍성한 열매 가능성을 맺자”

신임 이사/위원장 인사

우수명 아시아코치센터 대표 특별 칼럼

2024년 정기총회를 마치고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한국코치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했습니다.

코치 여러분의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우리 협회는 2024년에도 코칭 문화를 확산하고 코치님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활동을 제공하고자 5월에 코칭 북 페어, 7월에 중소기업 CEO 코칭 포럼, 9월에 코칭 학술대회, 10월에 제21회 대한민국 코칭 컨퍼스티벌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월례 세미나도 코치님들의 상호 네트워킹을 위해 상반기 각 1회 이상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인사말에서는 지난 3월 1~2일에 진행된 임원 워크숍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4년을 계획하고 미래지향적인 코치협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이번 워크숍은 협회 이사, 감사와 위원장이 전원 참석하여 각 위원회의 주요 현안과 올해 중점추진사업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국가공인 인증자격제도 추진에 대한 중간보고와 이번 정기 총회 시

도입된 모바일 전자투표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부 분임 토의 시간에는 협회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필요한 주제에 대해 임원 간 솔직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었으며, 서로에게 응원과 격려로 실행에 대한 의지도 높였습니다.

이어 코칭을 대중에게 홍보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토의했는데 코치협회의 질적, 양적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코치다움과 코칭다움, 콘텐츠의 질적 향상, SNS 활용 홍보, 공익 코칭 관련 정책 참여, 협회 2030 비전 달성을 위한 실행 방안 등 제시된 사항들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 강조하는 지금은 <코칭과 코칭 리더십>의 시대에 우리 코치님들과 함께 하는 여정은 즐겁고 보람된 시간들입니다. 코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한국코치협회 회장 김영현

GREETINGS

회장님 인사 및 임원 워크숍 소개

PEOPLE INTERVIEW

- 02 바인그룹 김영철 회장_
코칭으로 풍성한 열매 '가능성'을 맺다



02



12



14

ASSOCIATION OF NEWS

- 06 2024 정기총회
07 신임이사 소개 및 인사
08 신임위원장 소개 및 인사
20 공익코칭사업국_ 지혜 하나! 성장 둘! 멘토링 능력 향상 코칭

PEOPLE FOCUS

- 10 문제는 수직적 조직이 아니라 소통의 방법이다_ 우수명 코치
12 2023 올해의 코치상 수상자_ 김만수 코치
14 2023 올해의 코칭 도서상 수상자_ 현미숙 코치

ZOOM IN ISSUE

- 16 팀장클럽 Interview
18 KCA와 KSCS MOU 체결



코칭으로 풍성한 열매 ‘가능성’을 맺다

바인그룹은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깨우고 사람의 성장을 돕는 코칭 전문 기업입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이를 통해 개인과 조직,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김영철 회장님의 인터뷰를 통해 바인그룹의 철학과 비전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진권 (홍보위원장 / KPC 인증코치)

정리 윤영식 (홍보위원회 편집위원 / KAC 인증코치)

편집 김숙자 (홍보위원회 편집위원 / KAC 인증코치)

1. 코칭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유도 선수였습니다. 7년 동안 선수생활을 하다 연골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는데, 부모님께서는 차마 치료 비용을 말씀드릴 수 없어 운동을 그만 두고 출판사에서 방문영업을 했습니다. 운동만 하다 도서 영업을 하니 스스로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때 교육에 눈을 뜨게 되면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칭’이었고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코칭의 매력에 빠져 지금의 바인그룹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2. 바인(Vine)의 의미와 바인그룹의 핵심가치는 무엇인가요?

바인(vine)은 단순히 포도 열매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근간이 되는 ‘포도 나무’를 의미하며, 포도나무의 뿌리는 인간의 본질과 잠재력을 상징하며, 그 단단한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분이 ‘포도’라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본질은 개인과 조직, 기업과 사회, 그리고 현 세대와 다음 세대 모두가 함께 성장하도록 유기적인 연결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풍성한 포도, 즉 ‘가능성’이라는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 누구나 성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재능’이 발휘되어야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직접 코칭을 배워와 회사 구성원들에게 적용했어요.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죠. 바인그룹의 1순위 핵심가치는 ‘사람의 성장’입니다. ‘매출’이나 ‘회사의 성장’은 그 다음입니다. 회사는 무엇보다 방향성이 중요한데 ‘구성원’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구성원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코칭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3. 코칭이 경영철학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남들과 다르게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해야만 남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철학을 회사 초기에 적용한 것이 지금에서야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구성원들에게도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입니다. 이후 주변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켜 또 다른 선한 리더들이 탄생하고 결국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구성원들에게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강사들에게도 좋은 교육 툴을 제공해 그들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순간, 그리고 나의 존재가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훨씬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회사에서 구성원을 대하는 ‘경영철학’입니다.

4. 대표적인 코칭 사업을 소개해 주신다면?

바인그룹의 코칭센터계열사인 ‘와와학습코칭센터’입니다. 기존 학원과는 차별화된 시스템을 통해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습실력은 물론 진로와 입시까지 책임지는 자기주도학습 코칭 센터로, 코칭과 티칭을 접목한 유일하고 독보적인 교육센터입니다. 많은 전문 코치님들이 공부뿐 아니라 소양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며, 선생님들도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코치님들을 위한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수료하는 것을 승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와와학습코칭센터’는 어느 센터에서나 수준 높은 코칭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약 200개 정도의 센터를 앞으로 1,000개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 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청소년 사업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금전적인 유혹이나 어려움을





느끼는 경지를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확산시키다 보면 이에 영향을 받은 누군가가 다시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씨를 뿌려놓게 되고, 마침내 먼 미래에는 큰 숲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소년 사업을 통해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고 이제는 그 성장 원료들을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하지만,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려면 훌륭한 인성과 배려하는 마음, 리더십 등 이 모든 것의 조화가 중요한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우울증은 심각한 상태로 그들의 아픔을 지켜보기만 할 수 없어 더욱 사명을 가지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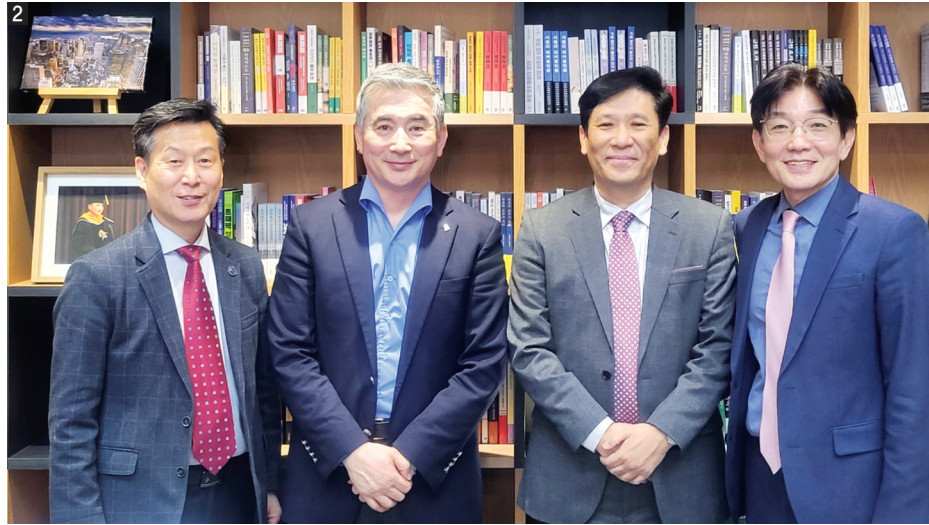
6. 바인그룹과 한국코치협회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한국코치협회의 강력한 인프라인 코치님들과 바인그룹의 프로그램을 연계해 공동으로 기획,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전남교육청, 한국코치협회와 함께 교사 중심의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런칭 했는데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코칭은 비교





1 바인그룹 역사관 탐방모습
2 왼쪽부터 최용균 이사, 김영철 회장, 박세환 인증위원장, 진권 홍보위원장



적 접하기 쉽지만 청소년 코칭은 흔치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청소년들과 교류해온 바인그룹이 팔방이 된다면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을 돕는다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다는 것이니 충분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7. 코치협회 회원들에게 한 말씀한다면?

성인을 위한 코칭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 코칭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귀한 직업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늘이 주신 업이고 어떤 이해관계를 넘어 신성한 '사명'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키우는 일을 업으로 하는 분들을 가장 존경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카리스마 있고, 가장 아름다운 명분이 있는 신성한 업을 코치님들이 하고 계시니 꼭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서든 당당하게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 우리 청소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은 해주고 싶습니다. '너는 네 생각보다 더 훌륭한 존재'라는 것과 '꿈을 항상 크게 가지라'고 말합니다. 처음 교육상품을 통해 회원으로 만나게 된 학생들이 자라 회사에 들어와 코치로 다시 활동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지금 그런 친구들은 회원으로 시작했는데 구성원까지 됐고 자기 꿈을 잘 펼쳐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들을 청소년들한테 잘 알려줘서 '나도 저렇게 하면 코치님처럼 되게 꿈이 생길 것 같아요'라고 하면 참 기쁘지 않을까요?

9. 향후 5년 동안 딱 한 가지에 집중을 한다면?

망설일 것 없이 '청소년 코칭'입니다. 저는 이것을 완전히 뿌리내려 자리 잡아 바인그룹의 역사적 기반을 잘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일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창업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청소년 코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

2024년 정기총회를 마치고

글 이영혜 (글로벌리더국 국장 / KPC 인증코치)

편집 김숙자 (홍보위원회 편집위원 / KAC 인증코치)



(사)한국코치협회(이하 협회)는 매년 1월 회원들과 지난해 사업을 마무리하며 결산을 추인받고 새로운 해의 사업 예산을 동의받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월 29일 저녁 7시 협회 대교육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성원보고를 시작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첫 번째 순서로 김영현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2023년 사업보고 및 감사 보고가 있었으며 회원들의 동의로 2023년 결산안이 통과되었다. 협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크고 작은 행사가 다양하게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도 회원들의 동의를 통해 통과되었다. 위원회별로 준비한 많은 사업을 통해 코칭과 협회를 알리고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다짐해 보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공석이 된 이사 1인 선출을 위한 투표 결과도 발표하였으며 최수황 코치가 이사로 당선되었다.

총회 당일엔 진행된 2024년 임원 선거는 처음으로 모바일 전자투표를 도입하였으며 선거 결과는 투표 종료 후 바로 공개가 되었다. 그동안 임원 선거는 회원들이 협회나 지역의 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으

며 지난 5년 평균 투표율은 12%에 불과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모바일 전자투표의 투표율은 세 배가 오른 36%를 기록하였다.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앞으로도 협회의 임원 선출 및 중대사안 결정을 위한 투표 진행은 모바일 전자투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더불어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최근 기업과 기관의 사내 코치 제도 활성화와 자체적으로 KAC코치 자격을 부여하는 기업 확대 그리고 각 분야에 코칭리더십 프로그램을 필수로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코칭협회 회원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때일수록 협회는 회원들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시대에 맞는 인증제도와 함께 교육프로그램에 변화를 주고, 기존 코칭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뿐 아니라 코칭에 관심을 보이는 여러 기관과도 MOU를 확대하여 코칭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총회를 마치며 내년 2025년 총회에서는 풍성한 사업 결산과 새로운 해를 계획하여 변화와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신임이사 소개 및 인사

글 최수향 (신임 모니터링 위원장 / KPC 인증코치)



안녕하세요, 코치협회 여러분,

날씨가 변화무쌍한 환절기입니다. 모두 감기에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날씨처럼 영켜 있고 나누어진 한국의 현실을 한국코치협회가 코칭을 통해 하나 되는 역할을 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긍정적인 소통과 화합의 공동체적 패러다임을 이루어 한국을 평안하고 자유로운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코치협회는 코칭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다양한 배경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간의 이해와 협력을 촉진할 것입니다. K-코칭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하여 안정과 협력의 가치를 제공하는 글로벌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모니터링 위원장으로서 협회 내외에서 협력하고 소통하며, 긍정적 변화의 시너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각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코칭과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직업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모두의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며, 이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임위원장 소개 및 인사

글 최용균 (기획운영위원장 / KPC 인증코치)

허영운 (사업위원장 / KPC 인증코치)

오연영 (역량강화위원장 / KPC 인증코치)



안녕하세요! **기획운영위원장 최용균**입니다.

따뜻한 봄의 기운이 우리 몸과 마음속에 가득하듯 (사)한국코치 협회도 봄기운 같은 에너지가 되어서 회원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가기로 희망하는 기획운영위원장 최용균 코치입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몇 년간 협회에서 많은 활동을 통해 회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으며 특별히 2024년에는 협회 기획운영위원장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음에 큰 기쁨과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코치협회가 우리 회원분들에게 성장과 나눔의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그간의 경험을 살려서 적재적소의 효율성으로 기획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기획운영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협회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이며, 월례세미나 개최, 코칭평과 학교등 코칭 조직과의 관계 관리, MOU 체결 및 관리, 명예코치 위촉과 간담회, 상훈 관리, 국내외 10개 지사 관리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이사회와 임원협의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홈페이지 디지털화 작업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1월에 처음으로 실시한 임원 선거 모바일 투표는 회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일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저는 코치합창단의 지휘자를 맡고 있습니다. 코치협회도 멋진 하모니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코칭 문화의 확산을 통해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소명감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위원장 허영운**입니다.

이사회와 위원회 업무가 결합 운영된 방식에서 이사회는 의사결정 기구로, 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진 실무 조직으로 분리된 새로운 운영체제 3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조직적 측면과 2023년에 수립된 협회의 MVV (Mission, Vision, Value) 2030을 바탕으로 한 2024년 사업위원회의 운영 계획 및 실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 코치협회의 MVV 2030에 따른 사업위원회 MVV 수립 및 실행입니다.

‘코칭으로 우리의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는 협회의 Mission과 ‘더 나은 미래에 도전하는 용기, 글로벌 코칭 허브’라는 Vision에 초점을 맞춰 사업위원회의 MVV와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업무 소통과 추진으로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코칭 사업 확대 및 개선입니다.

성공적인 기존 주요 사업은 유지, 개선하여 지속 발전시키고, 기업 비즈니스 코칭, 슈퍼비전 사업 등 코칭 모델 개발과 정부 정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코칭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조직 정비 및 안정화입니다.

사업위원회는 총 3개국인 사업 성장 토대를 구축할 ‘기획 운영국’, 사회 공헌 사업 기여를 담당할 ‘공익 코칭 사업국’, 코칭 기회를 확대할 ‘비즈니스코칭 사업국’으로 운영되며 각 국은 향후 중장기적 사업위원회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 개선입니다.

정기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어 정보 공유 및 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위원회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들을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역량강화위원장 오연영**입니다.

국내 코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한국코치협회가 지난해 2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해마다 발전과 성숙한 변화를 거듭하는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최근 코칭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코칭 산업 환경 역시 진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코치에게도 더 높은 수준의 코칭 역량이 요구되며, 코치 개인에 대한 자격과 윤리교육, 사회적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는 2024년 역량강화위원장으로 코치님들의 코칭 역량 강화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윤리교육을 강화하며, 새로운 진단 도구 개발에 힘써 코칭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일 것입니다. 빠르게 성장 발전하고 있는 코칭 산업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개인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규모와 내용 면에서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만나 될 ‘코칭, 북페어’를 통해 코치님들의 교류와 코칭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공신력 있는 ‘코칭 학술대회’를 준비해 내적·외적으로 단단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코치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경청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코치님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협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여정에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제는 수직적 조직이 아니라 소통의 방법이다

글 우수명 (아시아코치센터 대표 / KSC 인증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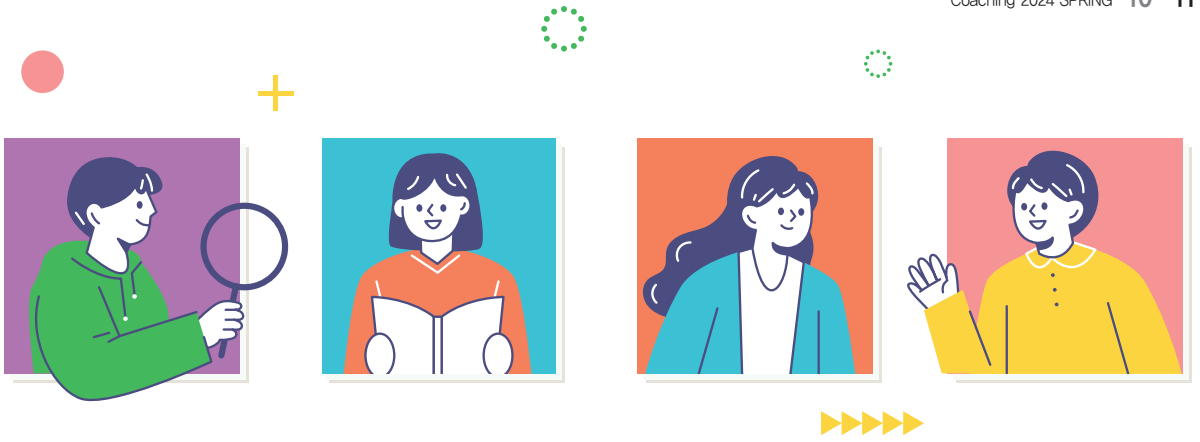
기업에서 코치형 리더와 코치형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평적 소통을 하기 위함이다. 전통적인 리더십은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에서 명령과 통제라는 방법을 사용하며, 지배와 복종 혹은 지시와 순종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조직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조직은 업무 과정이 단순하고 대량생산 체계에서 효율적이다. 그러나 최근의 급변하는 복잡한 산업환경과 사람들의 까다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유연성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기존의 수직적 명령체계에서는 상하 간, 부서 간, 구성원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조직 내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공유되지 않고, 수동적이고 제한된 업무성과 등에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오늘날 AI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인해 사람들의 요구와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크게 바뀌었기 때

문에, 리더의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지식과 답만으로는 대처하기 힘든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조직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코칭의 철학을 기반으로 '모든 솔루션은 부하직원이 가지고 있다'고 믿고, 리더가 구성원들 스스로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각기 다른 답을 찾아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동기부여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리더가 기존처럼 똑같은 답을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고, 똑같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능력과 자원을 낭비하는 일임과 동시에 기업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으로 바꾸면서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는 구성원들 개개인의 숨겨진 잠재력, 즉, 리더에게 없는 창의적인 수많은 다른 답과 탁월한 솔루션 등을 충분히



끌어냄으로써 업무와 조직 성장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원들이 가진 자원을 충분히 끌어내고 자발적인 기여를 극대화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동기부여 하는 일이 리더의 주 업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외적인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의 한계성은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이다. 무엇보다 구성원들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며 내적인 동기부여를 했을 때 주도적이고 장기적인 헌신이 도출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리더들은 구성원들 개개인의 필요와 가치를 등을 찾아내어 그들의 내적인 동기부여를 충족시키고 발현시키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조직의 구조가 어떻든 상관없이 수평적 소통이 필요한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 먼저 수평적 의사소통은 동일한 조직 수준에 있는 직원 간의 협업 및 팀워크를 촉진한다. 이를 통해 정보, 아이디어 및 피드백 등을 공유하여 더 나은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에 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정보와 동료들 간에 자유롭게 흐르게 함으로써 직원들이 회사와 관련한 업데이트, 변경 및 개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관점 등을 교환하며 더욱더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추구할 수도 있게 된다. 구성원들은 계층 구조의 제약 없이 브레인스토밍하고 통찰력을 공유하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또한 조직 내 소속감과 동기부여를 촉진하며 갈등해결, 변화대응력을 올려준다. 이렇게 소통이 자유로워지면 조직내 개방성, 신뢰, 협력의 문화가 조성되어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좋은 인재들이 장기근무를 선택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 때문에 조직 내에서 언제나 필요시에는 신속하게 양방향으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리더와 구성원이 서로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구성원들의 업무 태도가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로도 변화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져주고 비전과 가치를 업무에서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리더를 만나기를 갈구한다. 리더가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도와준다면 구성원들은 회사를 더욱 좋아하게 될 것이고 더욱 안정적인 마음으로 일에 몰입하며, 더욱 높은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인재개발 전문가들과 리더들은 기존의 수직적 조직을 모두 수평적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코치들도 수직적 조직구조가 인간사회의 모든 비효율적인 결과들을 만들어 낸 것처럼 말하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수직적 조직이 아니라, 소통의 방법이다. 인간세계에서 수직구조는 사회질서와 집단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조직은 기업과 조직, 집단의 목적에 따라, 또한 리더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지만, 어떠한 형태의 조직구조든 구성원 간, 상하 간 필요한 소통이 적시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조직이 좋은 조직이다.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좋은 문화이다. 앞으로 지속 성장을 원하는 조직이라면 모두, 이러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모든 자원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소통하는 조직, 좋은 소통의 방법을 가진 조직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

2023 올해의 코치상 수상자 김만수 코치

인터뷰, 정리 신정순 (홍보위원회 편집위원 / KPC인증코치)

편집 김숙자 (홍보위원회 편집위원 / KAC인증코치)



1. 코치님의 언어로 코칭을 정의하신다면 무엇입니까?

코칭은 '고객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진정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고객과의 만남에서 코치가 어떤 특별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게 되면 고객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치가 고객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바라보고 대화했을 때 비로소 코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객의 무한한 가능성이 일깨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코치님이 생각하는 코칭의 가장 큰 매력은 어떤 것인가요?

코칭의 가장 큰 매력은 고객과 함께 코치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코칭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성장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고객과 코치가 코칭 현장에서 함께 춤을 추다 보면 고객 스스로 관점이 전환되고 변화의 순간을 경험하면서 배움이 일어납니다. 코치 또한 코칭에 집중하면서 현존을 느끼는 훈련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코치의 의식이 더 넓어지고 배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객과 코치 모두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는 코칭의 매력을 경험합니다.

3.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기억되는 코칭 경험은 무엇인가요?

10년 전쯤, 리더십 모델링이라고 하는 NLP 코칭기법으로 어느 물류회사의 대표님을 1년간 코칭했습니다. 고객을 향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등으로 고객의 정체성이나 가치관, 행동패턴들을 정리하고 상상 속에서 고객이 원하는 모습을 추구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환경 속에 있고 싶은가를 떠올리게 하면서 고객의 정체성과 미션, 소명에 대한 깨달음도 얻을 수 있도록 코칭을 했습니다. 코칭 결과가 참 좋았습니다. 4년 전쯤, 그때 코칭했던 분의 초대를 받아 다시 뵈게 되었는데, 10년 전 저와 나누었던 리더십 모델에 관한 내용을 액자에 담아 여전히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고객과 함께 벅찬 감동으로 몽클했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4. 상대적으로 좀 아쉬웠던 코칭 경험이 있으신지요?

좀 아쉬웠던 경험은 제가 처음 임원 코칭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고객의 입장이나 고객이 원하는 것을 헤아리기도 전에 일단 먼저 코칭 진단을 한 후에 고객을 향해 ‘당신은 문제가 있으니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말에 고객이 상당히 반발하면서 코칭이 2~3주 정도 중단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무리는 잘 되었지만, 두고두고 못내 아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리더십 진단이나 여러 가지 코칭 툴을 활용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고객을 먼저 살피면서 동의를 구하고, 철저하게 고객 중심으로 코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깊게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5. 코치님의 앞으로 다가올 미래 모습을 상상해 보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2060년도입니다. 100살이 되는 시점이죠. 저는 그때가 오면 국제코칭연맹(ICF)의 MCC 인증코치 기준으로 1만 명의 마스터 코치를 양성하려는 비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꿈꾸는 전 세계 글로벌 리더들을 키우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각국을 돌아다니며 글로벌하게 코칭하는 것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알차림 코칭센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국코치협회 KSC 인증코치 과정과 국제코칭연맹 인증코치 과정까지의 모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8월에는 국제코칭연맹(ICF)의 MCC 인증코치 과정을 처음 오픈하기도 했으며, 다가올 2024년 4월에는 드디어 과정의 수료를 앞두고 있으니 훨씬 더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상상하는 글로벌 코칭으로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교두보가 생기는 셈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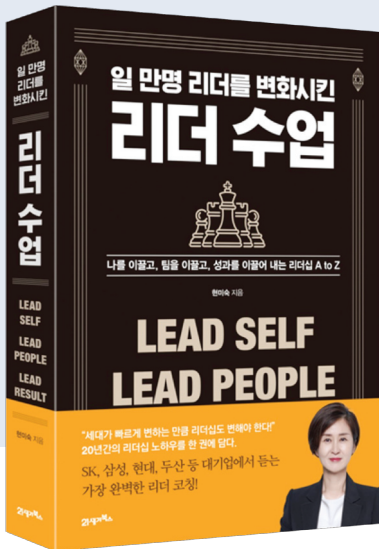
6. 한국코치협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양한 활동과 행사를 통한 코칭 문화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는 한국코치협회가 이미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면을 빌려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국제코칭연맹(ICF)의 한국지부인 코리아 챕터와 한국코치협회가 서로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 코칭산업을 한국에 활짝 꽃 피웠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코칭은 여전히 ‘거룩한 부담’이자 ‘설렘’이다

글 현미숙 (하우코칭 대표)

편집 윤영식 (홍보위원회 편집위원 / KAC 인증코치)



22년 전에 코칭에 입문하여 [하우코칭]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비즈니스코치로 활동한 것이 20년째다. 되돌아보니 22년의 세월 동안 걸어온 해는 없었다. 늘 달려왔고 자주 전력질주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코칭, 특히 비즈니스 코칭이 내게는 ‘설렘’이자, ‘거룩한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설렘, 그것은 곧 만나게 될 리더의 미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일어났다. 자신이 얼마나 더 큰 사람인지, 얼마나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인지, 조직에 어떤 유산과 성과를 남길 수 있는 존재인지, 코칭을 통해 얼마나 자신과 주변을 신뢰하게 될지, 그 모습을 미리 볼 수 있기에 고객을 만나러 가는 길은 설렘 수밖에 없다.

부담, 그것은 고객과 고객 상황을 맥락적으로 경청할 수 있는 역량에서 꿈틀대었다.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 이후, 기업 상황은 예상치 못한 변화 속도에 어지러움을 느꼈고, 같은 배에 올라탄 많은 리더들이 그 속도에 중심을 잃곤 했다. 코치가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어떤 배인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함께 승선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면, 고객의 맥락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하여 그들의 변화를 관찰하고 질문을 연구하고 현장에서 사용할 툴 박스를 만드는 것은 치열한 부담이었다. 그러나 영향력의 측면에서 리더라는 큰 바위가 작게라도 회전해 주면, 그것과 맞물려 있는 구성원들의 바퀴는 훨씬 더 큰 회전을 할 수 있기에, 이들과 호흡을 맞추는 일은 거룩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거룩한 부담을 혼자 짊어졌다면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최신의 정보를 나누고 사례를 공유하며 서로의 관점을 나눴던 하우코칭 파트너코치님들과의 교류가 그 중심에 있었다.

[리더수업]은 설렘과 거룩한 부담으로 만났던 수많은 리더들의 변화 여정을 담은 책이다. 현실에 가로막혀 굳어 있던 리더들의 마인드 셋에 충격을 주기 위해 연구자료와 이론과 모델이 필요했다. 인식한 것을 좀 더 쉽게 행동으로 옮기도록 현장 적용 툴박스들도 필요했다. 이런 치열하고 의미 깊은 사례들을 이 책에 생동감 있게 담고자 노력했다. [리더수업]은 [뛰어난 리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을 집필한 후, 10년 만에 집필한 책이다. 비즈니스 코칭을 받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이에 리더십 확장을 원하는 리더들이 스스로 셀프코칭을 통해 리더십을 확장하도록 돕고, 비즈니스코칭을 꿈꾸는 후배 코치님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썼다.

이 책은 최근까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리더십을 입체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나를 이끄는 리더십(Lead Self)',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Lead People)', 그리고 '성과를 내는 리더십(Lead Results)'이 그것이다. 나를 이끄는 리더십(Lead Self)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그 정체성에 부합하는 행위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자신의 강점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매니지먼트하며, 새로운 리더십 습관형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Lead People)에서는 다른 세대의 사람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동기부여할지, '지시'가 아닌 'Sharing'이 이루어지기 위해 리더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정리하고 실천하도록 돕고자 했다. 마

지막으로 성과를 내는 리더십(Lead Results)에서는 1년 동안의 성과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뤘다. 목표수립부터 성과리뷰까지 성과관리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이자 상황이어야 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전체 20개의 콘텐츠는 현장에서의 사례로 시작한다. 그 사례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관점, 이론, 모델이 제시되고, 어떻게 다르게 행동해 볼 수 있는지 기법과 툴도 함께 제공된다. 코칭 현장에서는 대부분 질문과 코칭 툴박스가 필요한데, 이를 어젠다별로 제시한 것이다. 한 콘텐츠가 마무리될 때는, 셀프코칭 코너를 마련했다. 리더 스스로 코칭해 볼 수 있는 도구이자, 코치들이 코칭 세션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툴박스이기도 하다. 20개 콘텐츠를 차례로 읽을 필요는 없다. 어젠다마다 필요할 때 골라 읽을 수 있다.

나는 여전히 코칭을 사랑한다. 사랑하기에 여기에 머물 것이다. 곧 만나게 될 리더들에게 그들의 확장된 미래를 확신에 찬 눈동자로 나눌 것이다. 후배 코치님들도 미래에 만날 고객을 기대하고 '꺾이지 않는 의지'로 달려가길 응원한다. 한 기업의 CEO께서 써주신 추천사 일부를 소개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하우코칭을 통해 현미숙코치를 만나기 전까진 코칭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임원 후보 리더들 코칭을 요청하며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나도 직접 코칭을 받았었다. 그러나 코칭을 받으며 몰랐던 나의 성격을 알게 되었고, 내가 일하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그동안 리더십에 대한 공부는 충분히 했다고 자부해 왔는데, 나도 몰랐던 부분 때문에 상처 입었을 구성원들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에 고개가 숙여졌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중략) 현미숙코치가 겪은 다년간의 코칭 경험을 엮어낸 책이 출간되었다. 한 권의 책으로 알차게 정리된 그의 코칭은 다양한 사례와 상세한 설명을 더한 덕분에 한순간에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다. 이 책을 만나 일상에 둔해졌던 마음을 다시금 일깨울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 행복한 리더가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자신 있게 권한다.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





팀장클럽 Interview

글 신동훈 (KPC 인증코치), 지희수 (인터비즈 기자), 배미정 (동아일보 기자)
 편집 김숙자 (홍보위원회 편집위원 / KAC 인증코치)

팀장클럽 슬로건

“우리 모두 팀장은 처음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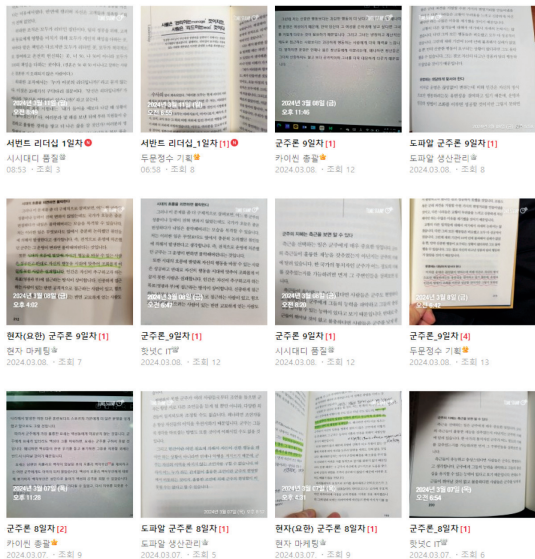
팀장클럽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팀장클럽은 2020년 1월 문을 연 네이버 카페로, 현재 1만 8,000여 명의 팀장들이 가입한 국내 최대 팀장 커뮤니티입니다. 명함을 통해 ‘팀장’ 인증을 해야만 등업이 가능한 인증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국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조직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찐’ 팀장들이 모여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인터비즈(동아일보-네이버 합작법인)와 동아비즈니스리뷰(DBR), 하버드비즈니스리뷰 한국어판(HBR KOREA)을 발행하는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가 함께 운영하면서 팀장님들의 리더십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독서 모임 ‘독한팀장’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리더십 전문 채널 ‘팀장클럽PRO’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장클럽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한국의 팀장들은 중간관리자로서 기업이 성과를 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실무와 더불어 조직 관리의 책임까지 맡으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위로는 임원에게 치이고 아래로는 팀원에게 받히면서 겪는 말 못 할 고충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마음 편히 고민을 터놓고 서로 위로와 공감을 나눌 수 있는, 팀장들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팀장클럽 커뮤니티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서로 다른 업종과 직무의 팀장들이 네트워킹하면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이를 반영해

팀장클럽 독서 인증샷



팀장에게 필요한 '조직 운영'과 '팀원 관리', '자기 개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소모임을 운영함으로써 리더십 향상을 통해 팀장들이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카페 개설 이후 6개월 만에 가입자가 1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현재 팀장클럽에서 주요한 활동들을 소개해 주세요.

우선, 현직 팀장들의 '사수' 역할을 하고자 리더십 관련 경영 전문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제공합니다. 특히 '팀장클럽PRO'는 매주 2회 발행되는 유료 멤버십 콘텐츠로 현직 베테랑 팀장, 리더십과 조직소통 전문가, 코칭 기관 등의 필진이 본인의 생생한 경험과 인사이트를 전합니다. 이 밖에도 경영 전문 잡지인 동아비즈니스리뷰(DBR)와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에서 팀장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리더십 관련 콘텐츠를 선별해 요약본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팀장님들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모임을 지원합니다. '독한팀장'은 팀장클럽을 대표하는 독서 모임으로 리더십과 조직문화 관련 책을 매일 읽고 인상 깊은 구절을 사진 찍어 공유함으로써 독서 습관을 키우고 리더십도 함양하는 모임입니다. 현재 10기가 진행 중인데, 한번 참여한 회원들의 재참여율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밖에도 출판사와 연계한 서평 이벤트와 저자를 직접 만나 대화하는 북토크 모임도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비정기 점심 모임 '팀클다방' 등 팀장들이 함께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모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팀장클럽은 리더로서 쌓은 노하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팀장들을 '작가' 팀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팀클 작가'로 등록하면 별도 게시판을 통해 본인의 글을 연재하고 본인의 프로필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팀클 작가의 연재 글은 카페뿐 아니라 인터비즈 블로그를 통해 네이버 메인에 노출되면서 큰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팀장클럽은 리더십 역량과 더불어 글재주를 가진 팀장들이 작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팀장클럽에 가입한 팀장님들의 주요 관심사가 궁금해요.

팀장클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시판은 '팀장끼리 고민상담소'입니다. 팀원 관리, 상사와의 관계, 이직 등 팀장이라면 누

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솔한 고민들이 올라오는 게시판입니다. 그중에서도 팀원 관리와 관련된 고민 게시글이 90%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출퇴근 인사를 안 하는 팀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팀장보다 오래된 팀원에게 어떻게 업무를 지시해야 할까요?" 등 팀장으로서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난처한 상황과 고충이 담긴 고민들이 올라옵니다. 게시물을 올렸을 때 댓글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큼니다. 경험이 많은 팀장들이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함께 분노하고 위로하면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이면서도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팀장들은 이 게시판을 통해 시중의 여느 책이나 강연에서도 접하기 힘든, 현실적이면서 실질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팀장클럽이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팀장클럽은 앞으로 팀장이라면 누구나 자주, 더 오래 머물고, 참여하고 싶은 커뮤니티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특히 팀장클럽의 팀장들은 학습과 성장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더 나은 콘텐츠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기획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 예로, 올해 처음으로 리더들을 위한 책 쓰기 프로젝트 'W.O.W(Write Our Way)'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팀장클럽pro' 콘텐츠의 리뉴얼을 준비 중이며, 신입 팀장들을 위한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업종과 분야, 관심사가 비슷한 팀장들끼리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사)한국코치협회와 협회 회원들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한국코치협회의 미션은 팀장클럽의 존재 이유와도 결이 같습니다. 팀장클럽도 팀장들의 행복과 성장이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조직, 더 나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팀장들이 현업에서 코치들과 협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접 코치로 활동하는 팀장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팀장클럽이 코치 분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코치협회와 협회 회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팀장클럽도 한국코치협회의 활약과 번영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KCA와 KSCS MOU 체결

글 민은홍 (KSCS사무총장 / 코칭앤문화연구소 대표)

편집 신정순 (홍보위원회 편집위원 / KPC 인증코치)



민은홍
KSCS사무총장

한국코치협회(KCA)와 한국코칭슈퍼비전소사이어티 (KSCS),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한국코치협회와 한국코칭슈퍼비전소사이어티(이하 KSCS)는 지난 2월 21일(수)에 협력 관계 수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코칭 문화의 번영과 한국 사회의 웰빙을 위한 협력 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코치협회의 김영헌 회장과 KSCS의 임인상 회장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코칭문화보급을 위한 정보 및 인적 교류 네트워크 구성, 공동사업의 개발과 협력, 상호 발전을 위한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 및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KSCS 소개

KSCS는 코칭 윤리와 질을 향상하고 코치와 슈퍼바이저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여 건강한 코칭 문화 형성과 우리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 9월 21일(목)에 출범했다.

KSCS는 최초의 코칭 슈퍼비전 과정이 열렸던 2003년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에 설립되었다. 세계 최초의 코칭 슈퍼비전 과정은 2003년 12월에 영국에서 진행된 이후 2011년에 스웨덴에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2013년에 미국에서 진행되었다.

슈퍼비전은 훈련과정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돕는 직원을 사회기관에서 고용한 것으로부터 출발되었는데, 시점이 1800년대 후반이다. 슈퍼비전이 120살의 완전한 성인이라면 코

칭 슈퍼비전은 20살의 풋풋한 청년인 셈이다. 코칭 슈퍼비전의 분야에서 KSCS의 출범은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슈퍼비전은 사회사업은 물론 정신분석, 심리치료, 상담, 교육, 간호, 코칭 등 다른 사람을 돕는 직업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으로 자리매김되었다. 그 가운데 코칭 슈퍼비전은 안전하고 규율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코치가 슈퍼비전 속에 생생하게 존재하면서 그 안에서 고객의 상황과 관계를 성찰하고 코치 자신의 반응과 패턴을 되돌아보며 이를 변화시킴으로써 고객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다.

코칭 슈퍼비전과 멘토 코칭은 둘 다 코칭의 효과성을 높이고 코치의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론이지만 차이점이 있다. 멘토 코칭은 주로 코칭 장면을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코칭 프로세스와 역량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와 달리 코칭 슈퍼비전은 코칭 장면에서 실제 일어난 것보다 코치가 경험한 것에 대한 협력적인 성찰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코칭 슈퍼비전은 코칭 대화의 기록물을 관찰하며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다.

현대의 사회와 조직에서 코칭은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최선의 방

코치협회-한국코칭슈퍼비전소사이어티 업무

2024년 2월 2



법이다. 예측불허의 급격한 변화 양상이 심화될수록 개인과 조직의 지속적인 학습이 중요해지고, 코칭은 더욱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지속적인 학습을 돕는 코치는 자신이 학습과 성장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초보적인 훈련 과정에 있는 코치는 물론이고, 한국코치협회가 인증하는 최고 수준의 KSC가 되더라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학습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코칭 슈퍼비전은 코치의 개인적, 직업적 개발의 필수 요소이다. ©

KSCS 창립총회



봄의 희망을 실은 공익코칭사업국

변혁과 성장의 스토리



‘공익코칭사업국’은 이슈가 있는 사회적 동반자에게 코칭으로 잠재적 가치를 창출시키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Driving” 하도록, 사회적 책임과 변혁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글 임희정 (공익코칭사업국장 / KPC 인증코치)

편집 윤영식 (홍보위원회 편집위원 / KAC 인증코치)



2024년 한국코치협회 사업위원회, 공익코칭 사업국장 임희정 코치입니다.

따스한 봄의 향기가 가득한 시간, 코칭을 통해 희망을 전하는 공익코칭 사업국에서 금년도 희망차게 시작한 공익코칭 첫 사업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혜 하나! 성장 둘! 멘토링 능력 향상 코칭’이 2024년 1월, 힘찬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포스코 사회공헌그룹의 후원과 한동대학교 글로벌교육 기부센터의 협력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6명의 코치를 선발, 멘토 대학생 25명에게 매칭하여 코칭스킬 향상을 돕는 멘토링 코칭을 진행합니다. 코칭에 대한 대학생들의 깊은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자립 학생들을 위한 코칭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며,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과 프레즌스를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대학생들은 코칭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전문 코치가 되어 선한 영향력의 비전을 갖게 될 것이며, 12회의 코칭을 마친 다문화 학생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 전문코치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펼친다면 학교, 가족, 친구,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더욱 협력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공익코칭 사전 미팅 모습



공익코칭사업국은 신사업 발굴로 사회공헌에 다양한 코칭을 제공하여 ‘슈퍼비전’ 강화와 코칭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코치톡

CoachTALK



코치님, 고객 찾기 힘드시죠?
원하는 고객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코치들의 대안, 코칭 플랫폼, 코치톡에서 고객을 소개해드립니다!
코칭스타일, 행동스타일, 에너지상태, 가치 등 **빅데이터 분석** ✓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코치를 **AI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찾아서 매칭해드립니다.

BEST Coach



코치를 위한 혜택

1. 나의 홍보를 대신해 준다
2. 코칭스케줄 관리가 편하다
3. 고객 소통과 관리가 편하다
4. 실행점검과 변화 관리가 효과적이다.
6. 고객분석을 시가 자동으로 해준다

- ✓ 베스트 코치로 활동!
- ✓ 효과적인 코치소개!
- ✓ 생생한 실행계획 플랜!
- ✓ 코치 영상, 세미나 등 고객모집 편리

- ✓ 코칭스타일 진단
- ✓ 행동스타일 진단
- ✓ 에너지 상태 진단
- ✓ 가치진단 등으로 고객분석

2024년 제21회 코칭 컨페스티벌 슬로건 공모전

응모자격	한국코치협회 정회원
응모기간	2024년 3월 15일 ~ 4월 9일
응모방법	한국코치협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응모주제	아래의 주제 중 1개 선택

- (사)한국코치협회 비전 2030 프로젝트 반영
- 개인과 조직의 긍정적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코칭의 역할
-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른 코칭 리더십의 발휘
- 국민행복을 위한 코칭 인지도와 저변 확대



Coaching BookFair

제2회 코칭 북페어



일	시	2024년 6월 1일(토) 11시~17시
장	소	왕십리 광장
부스참여대상	코칭책 저자, 출판사, 코칭회사, 개인코치	
행 사 내 용	책전시 및 판매, 코칭 프로그램 소개 및 체험, 1:1길거리코칭, 특별공연 등	

